

身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자라신자리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계 품종  
● 영양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천의 얼굴 연기 질로 삼매경



탤런트 강부자씨 산문박의 禪

나를 비울수록 자연스런 연기  
배역과 하나되기 37년 화두  
"향산 종이처럼..." 국회에서 선사  
항상 손에 단주... "부처님과 함께"

**의 력**

- 1941년 충남 논산 생
- 1961년 충남대 국문과 수료
- 1962년 KBS-TV 탤런트 2기로 입사
- 1971년 방송연기자협회 부회장
- 1983년 제14대 국회의원
- 1997년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수상
- 연기생활 37년동안 드라마 '달동네' '마담의 생활' '함종혁' '목욕탕집 남자들' 등 40여편 출연
- 현재 연극 '오구', KBS-2TV 드라마 '유정'에 출연중

◇드라마 속에서나 밖에서나 넉넉하고 따뜻한 우리시대 한국의 어머니상을 표현하고 있는 연기자 강부자씨. 강씨는 드라마 '유정'에서 법복을 입고 단주를 차고 복주머니를 든 모습으로 출연하고 있다.

"연기생활이란 나를 비우는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역이 주어졌을 때 잘하고자 또 멋지게 하고자 의식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를 비우면 갈수록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우러나 지는 거예요. 나를 많이 비울수록 좋은 연기, 자연스런 연기가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업보다도 특히 이상(我相)이 많으면 잘 할 수 없고 오래 할 수 없는 것이 연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62년에 데뷔한 이래 37년의 연기생활 동안 수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배역을 골라 본 적이 없다는 강부자씨(59). 어떤 배역이 주어지건 이것이 나에게 맞는 최상의 인연이구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몰입한다는 강부자씨에게 사람들은 '연기의 달인' '천부의 연기자'라는 수식어를 곧잘 붙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초입, KBS 별관 스튜디오에 있는 드라마 '유정' 녹화장에서 강부자씨는 75세 노인 박옥남으로 자연스럽게 변신해 있었다. 다른 연기자로 인해 몇번의 NG가 났지만 강부자씨의 모습은 여려없다. 수 차례 반복되는 되풀이 녹화에도 연기에 기복이 없다. 평상심이 그대로 연기에 묻어간다. '유정'에서 강부자씨가 맡은 박옥남역은 대기업장사를 아들 둘 둔 과파한 할머니로 못마땅한 구석이 있으면 재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해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러면서 또 정작 마음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다. 강부자씨는 평소 자신의 성격과 거의 떨어 맞는 배역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정이 가고 소화하기가 쉽다고 말한다.

드라마 '유정'에서 강부자씨의 구수하고 정감어린 연기 이외에 불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법복을 입고 손에 단주를 낀 모습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작가나 연출자가 따로 지시를 한 건 물론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본에도 없는 것을 강부자씨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그의 불심이 연기에 여과없이 반영된 결과다.

드라마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인 강부자씨는 실제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장갑대를 제외하곤 단주를 손에서 떼어 놓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곁에 다니며 다져진 돈독한 불심 탓에 광채 약세사리는 가지 않아도 단주는 꼭 챙긴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등 출연하는 모든 대본을 받으면 일단 사찰에 찾아가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어 종성들에게 무사히 회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62년 첫 데뷔시절이나 중견 연기자가 된 지금이나 여려없다. 그러한 습관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출연료나 기타 수익금이 생기면 처음에 받은 것은 꼭 부처님전에 바친다. 지금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뤄진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한다는 뜻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강부자씨의 진가는 브라운관만이 아닌 연극 무대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18일까지 정동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강부자의 오구'에서 그는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특별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낸 신명나는 무대를 꾸며 주고 있다. 강부자씨가 97년부터 주연을 맡아 감칠맛 나는 연기로 공연해온 연극 '오구'는 8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백3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 또 90년 동경 연극제와 91년 독일 예셀 세계연극제, 98년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초청공연 등 해외 무대에서도 극찬을 받은바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오구'는 그에게 있어 한국적인 체취가 통근히 녹아있는 연기를 마음껏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다.

재벌 사모님으로, 칠살은 할머니로, 생활력 강한 어머니로, 엄격한 대왕대비로 무슨 연극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이지만 역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깊은 정을 지닌 자애롭고 넉넉한 한국의 어머니상을 연기 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

중견 연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강부자씨에게 '연기'는 늘 화두다. 최고의 경지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연기, 자연스런 연기를 시청자에게 보여줄까 고민한다. "일단 배역이 주어지면 그 인물을 나를 대로 연구해 성격을 파악하고 개성을 부여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배역에 몰입한다. 일체의 잡념을 없애고 그 배역과 자신을 일치시키지요.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다 보면 삼매경에 드는 것처럼 배역에 몰입하다 보면 강부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이

탄생되지요." 지난해 최고 인기를 끌었던 KBS 일일드라마 '정대문의'의 톤수 '옥봉이' 역이 화제를 모은 것도 강부자씨의 배역과 하나되고자 하는 집념에서 나온 것.

미묘한 일세론 젊은 연기자들이 절을 때의 반짝임기에 도취되어 자신의 내면세계에 소몰일 때 결국 반짝임으로 끝나게 될 것 많이 보아왔다는 그는 후배연기자들에게 연기뿐 아니라 마음을 닦는 노력과 성실한 생활인이 될 것을 항상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때의 일화가 하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강부자씨는 "항을 반 종이에서는 항 내가 나고 작은 생선을 반 종이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부처님말씀처럼 항기로운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국회 직원중 한 사람이 찾아와, 오랫동안 의원외관에서 근무했지만 부처님말씀을 인용해 의원앞에 나가 당당히 선서한 의원은 강부자씨가 처음이라고 감격해했다.

강씨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무연의 일지인지 국회의사당안에 법당이 생겼다. 강씨는 국회의원 시절내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항상 법당에 들러 삼배를 했다. "일단 보고 달려온 삼을 돌이켜 보면 삶이 곧 연기고 연기가 곧 부처님과 함께 한 수행 생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연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97년부터 정기공연에 들어간 연극 '오구'에서 강부자씨는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상을 특유의 감칠맛나는 연기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2TV 드라마 '유정'. 과파하지만 따뜻한 이해심이 많은 박옥남 할머니로 분한 강부자씨.



◇드라마 녹화에 들어가기전 부처님께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다. 사진은 할머니로 분장하고 있는 장면.

##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 강릉 송라사 약사불

####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강릉시 연곡면 방래리 송라사 석조 약사여래좌상은 약한이 손의 크기나 몸체에 비해 크다. 두상에는 나발과 육계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원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몸체와 두상이 균형미는 있으나 얼굴에 눈과 입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 코와 이마의 형태는 마모되어 윤곽만 남아있으며 이마에는 백호공이 있는데 근래에 구슬을 박아놓아 얼굴과 균형이 맞지 않다. 짧은 목에는 삼도가 없고 두 어깨는 완만한 각을 이루고 있어 근엄함을 나타

### 원손에 약함...마모 심해

내고 있다. 불의는 통견으로 의문이 깊고 단조롭게 표현돼 있으나 무늬주름이 깊게 나타나 법의가 두텁다.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이며 원손에는 약함을 들고 있는데 선정인 형태에서 멀치 부근까지 높이 들고 있다. 결과부좌한 다리는 법의에 가리어 항마좌를 하고 있는지 길상좌를 하고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 상현좌의 형태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류영렬 답사부장은 "몸체에 비하여 하체가 커서 안정감을 주고 다리를 덮고 있는 의문은 율봉 불통하여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한 흔적이 특징인 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리=김원우 기자

**불교조각원**  
부처님조형 전문 연구소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 철원 삼신사지 석불 육계와 불두 선으로 구분 고려말 호족세력이 제작

고증: 정영호 박사



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눈과 머리는 옆으로 길게 조각하였으며 양어깨에서 내려오는 팔은 균형미가 떨어진다. 또 육계와 불두, 머리와 귀를 선을 그어 구분하는 등 조형미가 떨어진다.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조형미와 균형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불상제작의 쇠퇴기인 고려말에 조성됐다고 보여진다. (한국고대 박물관)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